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작곡가: Pete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작곡 시기: 1888년 5월 –8월 26일
초연: 1888년 11월 17일, Saint Petersburg Philharmonic Society 연주회. 작곡가 지휘
작품 유형: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제 1악장의 서주에 나온 선율이 네 악장에 걸쳐 되돌아온다 .

IMSLP: Symphony No. 5, Op. 64

Wikipedia: Symphony No. 5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는 Peter Ilyich Tchaikovsky가 1888년에 완성한 네 악장
교향곡이다 . Andante—Allegro con anima,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Valse. Allegro moderato, Finale. Andante maestoso—Allegro vivace 가 이어진다. 제 1악장 서주의 선율은 제 2악장의
흐름을 끊고, 왈츠의 끝에 스며들며, 피날레에서는 E major로 바뀌어 전면에 나온다. 흔히 운명 동기 라고 부르는 선율이지만 , 작곡가가 남긴 초기 메모와 완성 과정의 편지는 하나의 고정된 줄거리로 합쳐지지 않는다. 이 글은 1888년 관현악 총보 전곡을 다루고, Hamburg 공연을 위한 수정 전승은 별도로 구분한다.

작곡, 초연과 출판

Tchaikovsky는 1888년 봄 새 교향곡을 구상하고 5월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초고는 6월 29일, 관현악 총보는 8월 26일 완성했다. 초고는 Mikhail Ippolitov-Ivanov에게 보낸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남은 초기 스케치에는 최종본에서 버린 음악도 많다. 자필 총보는 Russian National Museum of Music의 КП 1200, фонд 88, № 59 에 보관되어 있으며, 118장에 적힌 네 악장과 작곡가의 리허설 기호 ·추가 빠르기 지시가 남아 있다.

첫 스케치 옆에는 운명 또는 섭리 앞의 완전한 복종, 의심과 탄식, 믿음에 관한 짧은 프로그램 문구가 적혀 있다. 반면 Tchaikovsky는 6월 23일 Grand Duke Konstantin에게 지금 쓰는 작품을 프로그램 없는 교향곡 이라고 소개했다. 초기 스케치 상당수가 폐기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그 문구를 완성본 전체의 줄거리로 확정할 수 없다. 첫 선율을 운명 동기 라고 부르는 관습은 이 메모에서 유래하지만 , 본문에서는 네 악장을 묶는 순환 동기라는 음악적 기능과 작곡가의 초기 발상을 나누어 다룬다.

첫 관현악 연주는 1888년 11월 17일 Saint Petersburg Philharmonic Society 연주회에서 열렸고 작곡가가 지휘했다. 초연 전 친구들은 작품을 높이 평가했고 공연에는 박수가 따랐지만, Tchaikovsky 자신은 Saint Petersburg와 Prague 연주 뒤 음악이 지나치게 다채롭고 길다며 실패작이라고 판단했다. 1889년 3월 15일 Hamburg에서 직접 지휘한 공연에는 만족했고, 훌륭하게 연주된 작품을 다시 좋아하게 됐다고 편지에 썼다.

이 변화 때문에 초기 수용을 초연 실패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헌정도 제작 과정에서 바뀌었다. 처음에는 Edvard Grieg에게 헌정할 생각이었으나 , 최종 헌정자는 Hamburg Philharmonic Society의 Theodor Avé-Lallemant였다. 자필 총보에는 헌정이 없고, Jurgenson 초판 표지에 À Monsieur THEODORE AVE-LALLEMENT. à Hambourg 라고 인쇄되었다 . Jurgenson은 1888년에 관현악 총보 plate 13991, 파트 13992, Sergey Taneyev가 만든 피아노 4손 편곡 13993을 출판했다.

현재 실연과 연구에 쓸 수 있는 판본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Georgy Kirkor가 편집한 1963년 Complete Collected Works Vol. 17A는 오랫동안 쓰인 소비에트 전집판이고 , Viktor Ekimovsky의 Belaieff BEL 690은 편집 주석을 갖춘 실용 총보다. Christoph Flamm의 2018년 Breitkopf Urtext PB 5558은 자필, 초판 총보와 파트, 자필을 보고 만든 Taneyev의 4손 편곡을 대조한 비평판이다 . 이 판은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의 차이, 종결부 372마디의 트롬본 진입처럼 구판에서 이어진 오류를 다시 검토한다.

소요 시간

전곡: 보통 약 43–50분
I. Andante—Allegro con anima: 약 13–16분
II.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약 12–15분
III. Valse. Allegro moderato: 약 5–6분
IV. Finale. Andante maestoso—Allegro vivace: 약 11–13분

Tchaikovsky Research는 약 45–50분, Breitkopf는 약 50분을 제시한다. Mariss Jansons와 Oslo Philharmonic의 Chandos 녹음은 약 43분이고, Manfred Honeck과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의 2022년 실황은 45분 20초다. 제 1악장 서주와 노래하는 두 번째 주제의 빠르기 관계, 제 2악장의 루바토, 종결부 컷의 채택 여부가 전체 시간에 영향을 준다. Hamburg 수정 전승을 적용한 녹음은 무삭제 연주보다 피날레가 눈에 띄게 짧을 수 있다.

편성

목관: 3 flutes(3rd doubling piccolo), 2 oboes, 2 clarinets in A, 2 bassoons
금관: 4 horns in F, 2 trumpets in A, 3 trombones, tuba
타악기: 3 timpani
현악: violins I, violins II, violas, cellos, double basses

Breitkopf 신판의 편성표에 덧붙은 심벌즈 ad libitum은 작품 전체의 기본 타악기 편성이 아니다. Arthur Nikisch와 Willem Mengelberg를 거쳐 전해진 피날레 502마디의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기본 편성에는 팀파니만 두고, 심벌즈는 Hamburg 관련 연주 전승에서 따로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네 악장의 구성

I. Andante—Allegro con anima

조성 ·규모: E minor, 542마디
소요 시간: 약 13–16분

느린 서주에서 두 클라리넷이 저음역에서 같은 선율로 순환 동기를 제시한다. 낮은 목관과 현악에 집중된 어두운 음색 뒤, Allegro con anima 가 아주 여리게 출발해 행진풍의 첫 주제와 넓게 노래하는 두 번째 주제를 펼친다. 발전과 재현을 거친 코다에서는 하행 선율이 저음역으로 가라앉으며 악장을 닫는다. 네 악장에
돌아오는 서주 동기와 이 빠른 주제는 피날레 끝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므로 하나의 선율처럼 묶지 않는 편이 구조를 더 분명히 한다.

Manfred Honeck은 2023년 음반 해설에서 서주 저음 현의 Pesante e tenuto sempre 를 넓고 길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Allegro con anima 의 시작은 현악에 적힌 ppp 가 먼 곳에서 깨어나는 듯 들리게 하고, 같은 리듬처럼 보이는 관악 음형도 16분쉼표가 있는 짧은 음과 점 8분음표의 긴 음을 구별한다. 저음의 무게, 극단적으로 여린 출발, 음가의 차이를 함께 조절한 특정 지휘자의 실제 설계다.

II.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조성 ·규모: D major, 184마디
소요 시간: 약 12–15분

낮은 현악의 화음 뒤 호른 독주가 긴 선율을 시작하고, 목관과 현악이 이를 이어받는다 . cantabile 와 con alcuna licenza 가 가리키는 노래와 유연한 진행 속에서 순환 동기는 두 차례 강하게 끼어든다. 오래된 자료에 적힌 180마디는 1963년 전집판이 한 시스템의 네 마디를 번호에 넣지 않아 생긴 값이다. Jonathan Del Mar 가 이 누락을 지적했고 최신 비평판의 실제 수는 184마디다.

International Horn Society의 Jonas Thoms는 이 독주를 자유롭게 늘어뜨리는 선율로 보지 않는다. 긴 음의 값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animando 에서 박의 움직임을 조금씩 빠르게 하고, ritenuto 에서는 단계적으로 늦추며, sostenuto 에 들어갈 때 새로운 안정된 빠르기를 세우도록 제안한다. Honeck도 악보에 잇따라 적힌 animando, animato, poco più animato 를 루바토의 근거로 삼는다. 두 자료 모두 자유로운 노래와 박의
지속을 함께 다룬다.

III. Valse. Allegro moderato

조성 ·규모: A major, 266마디
소요 시간: 약 5–6분

전통적인 스케르초 자리에는 왈츠가 놓인다. 현악의 가벼운 회전과 목관의 짧은 선율이 교대하고,
가운데에서는 빠른 잔음형과 헤미올라가 박의 경계를 흔든다. 순환 동기는 끝이 가까워질 때 큰 선언 대신 낮아진 음량과 짧아진 모습으로 들어온다. 앞의 두 악장에서 독립된 사건처럼 들렸던 선율이 이번에는 춤의 맥박 안에 섞인다.

Honeck은 241마디에 돌아오는 동기를 왈츠와 분리해 느리게 만들지 않는다. 248마디 부근 클라리넷과
바순의 하행 헤미올라가 현악의 세 박자와 엇갈리게 하고, 177마디에서는 클라리넷을 특히 여리게 연주한 뒤 ritardando 를 둔다. 2022년 Pittsburgh 녹음에 대한 BBC Music Magazine의 비평은 약음기를 낀 호른의 고립된 음이 우아한 왈츠에 어두운 색을 더한다고 짚었다. 이 악장에서 긴장감은 음량을 키우는 방식보다 춤 속의 이질적인 음색과 박절에서 생긴다.

IV. Finale. Andante maestoso—Allegro vivace

조성 ·규모: E major, 565마디
소요 시간: 약 11–13분

피날레 서주는 순환 동기를 E major의 Andante maestoso 로 바꾼다. 이어지는 Allegro vivace 는 빠른 현악 반복과 목관의 응답으로 출발하며, 동기는 춤의 진행 안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긴 코다에서는 Moderato assai e molto maestoso, largamente, marciale, energico, con tutta forza, Presto 가 차례로 성격을 바꾼다. 잠시 완결처럼 들리는 큰 종지 뒤 음악이 다시 움직이고, 마지막 스무 마디쯤에는 순환 동기뿐 아니라 제 1악장 Allegro con anima 의 주제도 돌아온다.

Honeck은 70마디 부근에서 현악에 묻히기 쉬운 목관의 8분음표 음계를 드러내려고 현악 음량을 줄인다. 172 마디의 순환 동기도 별도로 늦추지 않고 빠른 춤 안에 유지한다. 반면 472마디 이후 행진에서는 악보의 Moderato assai e molto maestoso 와 largamente 를 따라 폭을 넓히고, 마지막 Presto 는 다시 한 단계
빠르게 만든다. 빠르기 변화가 많은 종결부를 한 번의 지속적인 가속이나 하나의 거대한 행진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갈라진 지점

Christian Lindberg는 2016년 BIS 북클릿에서 교향곡 4–6번의 메트로놈 표시를 우선하며, 관습적으로 더한 루바토가 작곡가의 명시와 충돌해 왔다고 썼다. 그의 제 5번 녹음은 44분 1초다. 반면 Gustavo Dudamel은 2009년 Simón Bolívar Youth Orchestra 녹음 인터뷰에서 제 1·2악장에 이어지는 빠르기 표기를 숫자의 변경보다 감정 변화로 읽었다. 두 지휘자는 악보의 많은 빠르기 지시를 그대로 출발점으로 삼을지, 그 지시가 바꾸는 감정과 음색을 먼저 찾을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보인다.

Benjamin Zander가 Michael Bukhman과 Boston Philharmonic Orchestra를 지도한 제 1악장 공개 수업은 서주의 시작을 호흡과 박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Zander는 두 클라리넷의 같은 음에서 한 대의 독주와는 다른 두꺼운 저음 색채를 찾고, 첫 박을 서둘러 내리기 전에 주자들과 함께 들이마셨다 . 16분음표 둘에는 약간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서주 전체가 계속 처지자 메트로놈 표시 80으로 돌아갔다. 첫 바순 pianissimo에서는
주자가 극약음을 준비하도록 시선을 주고, 이어지는 pianissimo–mezzo forte–forte가 단계적으로 커지게 했다.

2026년 PBS가 공개한 Gemma New와 New World Symphony의 리허설은 제 1악장의 다른 구간에서 감속과 감쇠를 분리했다. New는 특정 화음의 각 음을 종처럼 앞에 세운 뒤 즉시 물러나 배경 화음이 들리게 했고, rehearsal T 부근에서는 빠르기를 늦추지 않은 채 음량만 누그러뜨려 뒤의 도착점이 드러나게 했다. Zander 가 서주의 기본 박과 크레셴도 단계를 세웠다면 New는 주부에서 음량 변화가 빠르기 변화로 잘못 번지는 것을 막았다.

제 2악장 호른 독주에 관한 Zander의 공개 수업은 시작에 54로 적힌 빠르기를 먼저 회복한 뒤 con alcuna licenza의 자유를 쓰는 방식이다. 비슷하게 돌아오는 세 구절을 같은 강도로 만들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이를 두며, animando에서는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의 ritenuto와 diminuendo를 따른다. 호른과 클라리넷이 함께할 때에는 호른이 혼자 늘이지 않고 상대의 박을 듣게 했다. Dudamel은 같은 악장에서 저현의 첫 화음이 전체 분위기를 정하므로 이 음색이 자리 잡아야 호른 독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독주의 박과 상대 파트를, 다른 하나는 독주가 나오기 전 관현악의 음색을 우선한 선택이다.

Cleveland Orchestra의 바순 주자 Barry Stees는 2013년 Honeck 지휘 공연 직후 제 2악장 합주 과정을 기록했다. 클라리넷에서 바순으로 넘어오는 선율은 틈 없이 음색과 프레이즈를 맞추고, 뒤쪽 바순 성부는
두꺼운 현에 묻히지 않도록 표기보다 존재감을 높였다. 바순의 아홉 음은 4+5 또는 3×3으로 정확히 세되 계산처럼 들리지 않게 했고, 바순 선율이 다시 나올 때 Honeck은 현의 음량을 낮췄다. 호른 독주 뒤에도 같은 악장에서는 목관끼리의 인계와 현악 균형이 계속 빠르기와 프레이징을 결정한다.

제 3악장에서는 지휘자의 개입 정도가 갈린다. Stees는 약 ♩=152의 공연에서 rehearsal D의 바순 독주 첫 네 음을 자유롭게 늘이자 바순의 엇박이 현악의 정박과 겹쳤고, 다음에는 곧고 일정하게 연주해 맞았다고 기록했다. Dudamel은 현악이 팀파니와 관악을 들으며 실내악처럼 맞추자 거의 지휘를 멈췄다. Valery Gergiev는 2011년 WQXR에 게시된 인터뷰에서 반복적이고 각진 결과를 피하려 지휘자가 매 마디의
분위기에 개입해야 하지만, 리듬의 안전성을 흔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기록은 왈츠의 유연성을 독주 음가의 통제, 파트 사이 자율적인 청취, 지휘자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각각 다르게 확보한 사례다.

Hamburg 수정과 연주 전승
Tchaikovsky는 1889년 Hamburg 공연을 준비하며 일기에 피날레를 줄였다고 적었고, 며칠 뒤에는 관현악 파트를 고쳤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 공연에서 사용한 작곡가의 지휘용 총보는 사라졌다. 정확히 어느 마디를 빼고 무엇을 바꿨는지 모두 복원할 수 없으므로, 1888년 총보와 별개의 완성된 Hamburg 판본 이 남아 있다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Flamm의 Breitkopf Urtext는 Nikisch와 Mengelberg가 남긴 간접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두 건너뛰기와 502마디 심벌즈를 선택 사항으로 싣는다. 그 전승을 따르면 피날레 전개부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고 종결부의 인상도 달라진다. 무삭제 텍스트, 간접 전승을 적용한 컷, 후대 지휘자의 빠르기와 악기 선택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음반이나 공연을 비교할 때 피날레 시간만 보지 말고 어떤 텍스트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분명해진다 .

주요 레코딩

Yevgeny Mravinsky / Leningrad Philharmonic Orchestra (1960, Deutsche Grammophon): 1960년 영국 순회 직후 녹음한 교향곡 4–6번 세트의 일부다. 팽팽한 빠르기와
높은 긴장, 날카로운 관현악 윤곽으로 오랫동안 비교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BBC Music Magazine
은 이 세트의 에너지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력을 주요 선정 이유로 든다.
George Szell / Cleveland Orchestra (1959년 녹음 ·1960년 초출, Sony): Richard Freed
는 감정을 부풀리지 않으면서 짜임과 관현악 세부를 또렷하게 드러낸 연주로 평가했다. Mravinsky 의 강한 압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부 균형과 정돈된 진행을 들을 수 있는 역사적 녹음이다. Mariss Jansons / Oslo Philharmonic Orchestra (1984, Chandos): 약 43분의 긴축된 전곡으로, Jansons와 Oslo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초기 녹음이다. BBC Music Magazine은 Jansons의 Tchaikovsky 연주가 Mravinsky와 Leningrad의 전통을 잇되, 악보에 적힌 빠르기 변화와 선명한 아티큘레이션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Manfred Honeck /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2022년 녹음 ·2023년 발매, Reference Recordings): 악장별 14:09, 13:22, 5:38, 12:11의 실황이다. Honeck이 마디
번호와 녹음 시각을 붙여 저음 현의 음가, 호른 독주의 루바토, 왈츠 속 순환 동기, 종결부의 목관 균형과 빠르기 변화를 직접 설명한다. 연주 결과와 지휘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하기 좋다.

□□ □□

- Tchaikovsky Research, Symphony No. 5
- Tchaikovsky Research, Letter 3589 to Grand Duke Konstantin
- Tchaikovsky Research, Letter 3738 to Nadezhda von Meck
- Tchaikovsky Research, Letter 3814 to Vladimir Davydov
- Russian National Museum of Music, □□ □□
- Breitkopf & Härtel, Christoph Flamm □□ Urtext
- Schott, Viktor Ekimovsky □□□
- Jonathan Del 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 Manfred Honeck, Reference Recordings FR-752SACD □□ PDF
- Christian Lindberg, “Tchaikovsky: Symphonies Nos 4, 5 and 6” — BIS Records booklet
- Benjamin Zander, “Tchaikovsky Symphony No. 5, 1st Movement” — Benjamin Zander Center
- Benjamin Zander, “Tchaikovsky Symphony No. 5, 2nd Movement” — Benjamin Zander Center
- Gustavo Dudamel, “Tchaikovsky: Symphony No. 5” — Official website
- “Conductor Gemma New: Chasing Crescendos” — PBS Great Performances
- Valery Gergiev, “Tchaikovsky’s Fifth Symphony” — WQXR
- Barry Stees, “Tchaikovsky 5th First Movement” — Barry Blogs
- Barry Stees, “Tchaikovsky 5th Second Movement” — Barry Blogs
- Barry Stees, “Tchaikovsky 5th Third Movement” — Barry Blogs
- Jonas Thoms, International Horn Society, □ 2□□ □□ □□ □□ □□
- BBC Music Magazine, Honeck/Pittsburgh □□ □□
- BBC Music Magazine, Jansons/Bavarian Radio Symphony □□ □□
- Chandos, Jansons/Oslo □□ □□
- SoundStage!, Szell/Cleveland □□ □□
- BBC Music Magazine, Mravinsky/Leningrad 1960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47 UTC by □□□
Updated 2026-10-04 10:05:47 UTC by □□□